

지역 소식 통

부안군, 겨울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수칙 홍보

부안군이 올해도 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겨울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12~3월 겨울철 야생멧돼지 출몰이 빈번하고 먹이를 찾아 축사 주변까지 내려올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문자 발송 및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에서 열선 및 소독기 노출 보온덮개 설치 등을 통해 소독기 동파를 방지하기, 산비탈 근처에 위치한 농장은 눈이 녹으면서 물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로 정비, 축산관계자의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방문의 금지, 눈이 예보되거나 내리는 동안 축사 내부 소독, 눈이 그친 뒤 농장 입구에 생석회 도포, 농장 주변 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 시 즉시 환경부서에 신고,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반려동물 인덕션 화재 주의 당부

고창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가정 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며,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덕션 화재 위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주방 싱크대 위로 올라가 인덕션에 설치된 터치식 전원 스위치를 밟을 경우 조리기가 작동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스위치는 동물의 발바닥에도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고양이는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습성이 있어 거주자가 장시간 외출한 사이 인덕션 등 조리기가 켜지면 과열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가정 내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해 △인덕션 버튼 덮개 사용 △조리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생활 속 안전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범군민 총궐기 · 상경투쟁 준비

RE100 산단 유치, 새만금 개발 또다시 군산 · 김제 쏠림 조짐 부안 전역 분노 확산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군산 · 김제로 가우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부안군민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지역사회 전반에서 “30년 소외의 역사를 이번에 끝내야 한다”며 범군민 궐기대회와 상경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부안군민들은 RE100 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안이 또다시 배제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해상풍력도 부안 앞바다, 전기도 부안에서 만들지만 혜택은 군산 · 김제가 가져가는 구조가 30년째 반복됐다”며 “이번에도 부안이 빠지면 새만금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부안군민 · 사회단체 · 청년단체들은 RE100 국가산단 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구성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이들은 조만간 대규모 군민 궐기대회 개최,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 새만금개발청 항의 방문 상경투쟁으로 행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군민들은 “부안이 만든 전기를 다른 지역이 독식하는 불공정 구조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RE100 국가

산단이 부안에 반영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민들은 이번 요구가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의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주민들은 “새만금 개발 초기부터 기반 시설 · 산업용지 조성에서 부안만 배제돼 왔다”며 “RE100 산단에서 빼앗기면 부안은 새만금에서 영구히 밀려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민사회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부안 7공구의 산업연구용지 반영, 해상풍력 · 수상태양광을 활용한 국내 최초 친환경 RE100 산단 구축, 전력공급망 우선 배치 등을 정부가 즉각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RE100 산단의 부안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부안군민의 요구는 정당하고 명확하다”며 “부안의 오랜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도 군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민들은 정치권에도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정청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원택 국회의

원 △이학형 국회 부의장 △새만금위원회 김흥국 민간위원장 등에게 RE100 산단의 부안 배치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부안군은 정치권과 부안군민, 사회단체들을 하나로 규합해 RE100 산단유치 범군민 추진위를 발족해 규탄 기자회견, 국회 앞 결의대회, 정당사 항의 방문 등 실질적인 압박 행동도 검토 중이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부안 RE100 산단은 지역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 주민은 “대통령이 직접 부안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이 문제는 중앙부처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범군민 궐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RE100 산단 후보지 결정은 새로운 긴장 국면으로 넘어갔다. 부안군민의 대규모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민들은 “RE100 산단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며 추가 행동도 예고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발로 뛰는 리더십... “현장에 답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 미생물 인프라 · 제설 대비 태세 집중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농축산 미생물 산업 현장과 겨울철 시민 안전을 책임질 제설 관리소를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쳤다. 핵심 위 보고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인 개선행을 제시하는 ‘발로 뛰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26일, 정읍 농축산업의 핵심 기반이 될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인프라(기반시설)’ 구축 현장과 겨울철 도로 안전의 요충지인 도로장비관리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행보는 시설 건립 초기의 품질 관리부터 연구진의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다가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의 삶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사항들을 직접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은 이 시장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시공 상태를 면밀히 점



검했다. 특히 관별(패널) 구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취약 부위를 사전에 파악해 완벽하게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연구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의 설치와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초기 단계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향후 시설의 수명을 결정짓고, 나아가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상하농원, 지역상생관광모델 선정

전북 고창군의 농촌 테마형 관광지 ‘상하농원’이 2025 한국관광의 별 지역상생관광모델 분야에 선정됐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KTO)는 이날 제15회 한국관광의 별로 상하농원을 비롯한 전국의 관광지를 선정 · 발표했다.

‘한국관광의 별’은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고 있다.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추천한 부문별 후보지 중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 · 시상하면서 K관광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여겨지고 있다.

상하농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 매일유업이 공동 투자해 조성했으며, 아트디렉터 김범 작가와 국내 건축가

들이 10년 넘게 준비한 끝에 2016년 4월 문을 열었다. ‘짓다 · 놀다 · 먹다’를 주제로, 좋은 먹거리를 짓고 이를 관광객과 함께 경험하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체험 공방, 유기농 목장, 로컬푸드 기반의 식음 시설, 파머스빌리지 호텔과 글램핑 등 체류형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관광객의 체험 과정이 다시 지역 생산자에게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농촌관광의 가치 확산에 기여했다.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고용 구조, 지역 농가와의 안정적 거래, 오랜 기간 지속된 원재료 구매 및 협력 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속 가능한 농촌 만들기 핵심 사업 성과 · 계획 발표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언론인 대상 정례브리핑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하반기 언론인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 경영 안정과 스마트 원예농업 확산, 농생명 산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들의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장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올해 기본형 공익작물금과 전라작물 직불금, 농민 공익수당



등에 총 745억 2300만원을 투입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가구

당 지급에서 ‘농업인별’ 지급으로 확대 개편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늘렸다고 밝혔다.

쌀 수급 안정과 미래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성과도 발표했다. 쌀 과잉 공급에 대응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 목표(1458ha)를 초과한 1732ha를 추진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강하고 밥맛이 우수한 지역 맞춤형 벼 신품종 ‘전주884호’를 육성해 내년 품종보호권 등록을 추진하는 등 정읍 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홍수 위험 ‘오단소하천 유정교’ 철거 완료

정읍시가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해 홍수 위험을 키웠던 오단소하천 내 유정교 철거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철거를 통해 갑작먼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하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했다.

철거된 유정교는 1985년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당초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던 지방도 상의 시설물이었다. 지난 2016년 지방도 701호선 노선 변경에 따라 관리권이 정읍시로 이

관됐으나, 교량의 교각이 좁窄해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집중호우 때마다 부유물이 걸려 하천 범람 우려가 제기되는 등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7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으며,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한편 김두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51세부터 70세로 제한하고 있어 50세 이하 여성

농업인과 71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타당성과 효율성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